

촛불 VS MB식 공안정국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대통령



지난 7월 중순, 청계광장의 촛불은 의연했다. 경찰의 원천봉쇄를 비롯기라도 하듯 시민들은 차분한 모습으로 청계광장에 모여들어 끝없는 인파를 만들었다. 촛불은 다양한 감성에서 풍부한 표현이 나오고 있다. 한동안 잠잠해질 수 있을지언정 그만큼 촛불은 호흡이 길어졌다. 상황은 불안

한 예견들과 선부른 판단들을 뒤로 하고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소강기를 지나 다시 기지개를 켜는 촛불과 부정적 여론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대응은 눈뜨고 바주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다. 아마도 경찰은 압수한 진보연대의 컴퓨터에서 엄청난 양

의 이적표현물을 발견하고, '간첩단' 몇 개는 만들 수 있다고 득의양양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보연대나 참여연대가 한 일이라곤 '집회신고 대행 및 방송설비 임대업'에 지나지 않는다.

집회는 폭력으로 진압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압수수색과 수배로 묶어매며, 네티즌은 검찰 수사, 포탈은 공문자를 파괴하는 법 개정, 방송은 특보사장단 투입, 급기야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까지 검찰과 경찰, 정부와 청와대,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촛불을 억압하고 있다.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국민의 비판 여론에 귀를 닫고, 언론부터 통제하려 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방송장악 시도와 네티즌 탄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를 과거로 되돌려 놓고 있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을 바라보며 국민과의 소통을 반성하였다는 대통령 말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가 벌이는 행태를 보면, 그 말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누르는 힘이 강할 수록 용수철은 강하게 튀어 오르는 법이다.

결국 대통령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포기한 것이다. 그럼 국민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한다. 이제 헌법이 보장한 '행복해질 권리', '죽지 않을 권리',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달의 보도자료		이달의 주요기사	
전문은 홈페이지 성명서/보도자료 참조			
7.03	[성명]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인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는 한국교총과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02	아름다운 학교문화만들기 지식과 체험의 균형' 체험학습
7.15	[기자회견문] 급식비리척결, 직영전환 촉구, 교장단 규탄 기자회견	05	정책 교육정보공시제, 무엇이 문제인가?
7.15	[기자회견] 학자금 금리 인하 촉구를 위한	06	기획특집 사교육을 고민하다!
	기자회견	10	안승문의 스웨덴-핀란드 교육이야기③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가?
7.21	[성명]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반대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비교육적 처사를 규탄한다	12	지부지회 소모임 아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작은 모임
7.22	[기자회견] 저소득층 교육권리 배제하는 서울교육청 규탄기자회견	14	상담실Q&A 오랫동안 지속되는 따돌림
7.23	[기자회견] 교과부는 초등 영어 수업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7.25	[기자회견] '서울시교육감후보추경복' 지지 학부모선언기자회견		

2008년 여름연수

"우리가 만났으면 길이 됩니다"

전국회원 여러분, 상반기동안 교육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여름연수에서 그동안 못다했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어린이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과 함께해주세요.

- 일시 2008년 8월 15일(금)~16일(토)
- 장소 무주 '푸른꿈고등학교'
- 회비 어른 2만원, 아이 2만원

아름다운
학교문화만들기
연재글

1회 불법전조급 없는 학교 문화 만들기
2회 새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 가정방문, 편지보내기
3회 학년말 책거리 행사와 함께 스승의 날을 치루자
4회 새로운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의 모색
5회 학교급식은 교육이며 생활이다

6회 자원봉사가 나아가길
7회 운동회
8회 모범적인 학교 도서관 운영
9회 모범적인 학급운영과 동아리 활동
10회 학부모의 학교참여

11회 학교를 알면 자녀 교육이 보인다
12회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13회 학부모 학교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14회 급훈
15회 학교급식

16회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17회 체험학습

'지식과 체험의 균형'

체험학습의 교육적 의의를 강화하려면

〈편집자 주〉 그동안의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들의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목적으로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 개선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 바로 체험학습이다. 체험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창의교육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체험학습의 그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 학교현장의 모습이다. 또한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체험학습 시행 역시 자율성이 부여되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차이가 유발되고 있다.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17회]에서는 체험학습에 대한 이해와 향후 나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양한 체험의 기획, 그것이 수업의 본질이다



김성전(인양, 충원고 교사)

우리나라 교육이 갖는 문제점 중 하나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삶과 수업이 하나 되지 못하고, 뭔가 괴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점수를 얻었는가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족집게 과외 선생이라든지 학원의 명강사를 그토록 원하는 것이다. 수능을 마치고 나면 교과서를 집어 치우고, 학교조차도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점수를 잘 받았다는 것이 좋은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패스한 수재였지만, 결국 스캔들에 연루되어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이 되고 말았다. 교사들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점수를 잘 받았는가보다는 학생들의 삶이 구

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교육은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과 현실의 교육과정은 커다란 갭을 보이고 있다. 분명 교육과정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대한 다양한 기획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실에서 문제풀이 내지는 개념의 반복 수업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체험학습은 일종의 이벤트 수업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른바 갯벌탐사라든지 박물관 관람과 같이 특별한 날에 어찌나 한번 경험하는 교육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학습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수행평가의 요식 행위로서 체험학습이 존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제를 위한 귀찮은 수업의 일종으로 체험학습을 바라보기도 한다.

나는 체험학습의 의미를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험학습은 단순히 어떤 특정 공간에 다녀오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체험+체험+체험=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체험에는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 있을 것이다. 체험학습은 결국 학생들의 삶이 동원되는 수업을 의미한다. 굳이 바깥으로 나가야만 체험학습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좋은 수업은 교과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학생들이 경험한 삶의 요소를 얼마나 잘 동원했는가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 영화를 보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데 그것은 양 국가간에 존재하는 엄청난 문화 차이 때문이다. 이를 문화할인율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삶과 괴리된 수업일수록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그것을 교육할인율이라고 칭하고 싶다. 이러한 교육적으로 체험학습은 일종의 이벤트 수업에서 수업이 출발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지식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수업은 곧 체험의 과정이어야 하며, 그 경험에 대해서 동료와 교사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교육이 그토록 무미건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객관주의와 중립주의라는 연구적 가치가 교육에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탐구의 주체와 대상이 철저하게 분

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틀에 머무르게 되면, 지식을 통해서 가슴 뜨거운 그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삶은 곧 앓이고, 앓은 곧 삶이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와 교과서에는 민주 시민의 사회 참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촛불시위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회 참여의 방법에 관해서, 그리고 프랑스의 대혁명과 우리나라의 3·1운동과 4·19 혁명,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우기는 하지만, 그 정신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접목하는지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업은 교과 지식과 학생들의 삶을 유의미하게 연관 짓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수업의 다양한 기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자신의 입장이 무엇이든 촛불 시위의 현장을 구경하거나 참여해보는 것만으로 교과서 이상의 지식을 얻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교과 지식의 잘 요약하고 암기하고 문제풀이를 잘하는 데서 나타나 것이 아니다. 교과 내용을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시키고, 그 수업의 실천적 의미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마치 관광 가이드가 고객들에게 어떤 체험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며 코스를 심각하게 고민하듯, 교사는 교과 체험을 고민하는 수업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

미디어로 여는 세상

선생님과 떠나는 미디어 여행



김형태(시흥 냉정초등학교 교사)

우리 아이들은 고도로 발달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하지도 못한 채 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파악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비평적 사고(Critical Thinking)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를 자극할 수 있는 교육이 절

실히 필요하였다. 또한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고 표현한 것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까지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연계하여 이뤄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현재 미디어 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이 맛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좋은 미디어 교육이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쇼·오락프로그램, 광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나오는 스테레오 타입이나 반사회적 가치를 아이들과 함께 모니터 해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해 보는 활동을 구상하였다. 또한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사진을 이용한 감정 표현하기, 영상을 활용한 시낭송 수업, 미디어 연극,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광고나 UCC로 만들기 등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 표현하는 미디어 수업을 적극 실시하여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단지 학교에서의 수업으로만 끝나면 안된다는 것이다. 1학년예 입학해서는 학교나 가정에서 배운대로 그대로 실천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삶과 배운 것이 괴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과 학교 교육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와 가정에서 연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즉 부모님과 선생님이 함께 하는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였다. 정보를 안내장 형식으로

내보내어 학부모님들에게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디어 교재를 통하여 부모님과 주말동안 TV프로그램 모니터하기와 같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체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아이들이 표현하는 미디어 수업을 적극 실시하여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이제 곧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데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아이들이 과도한 TV시청과 인터넷 게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안 좋다, 나쁘다'라는 식의 교육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더욱 호기심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찾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된다.

중국 이야기,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들린다

중국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인천에 모였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싼다.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다녀와야 할 텐데... 한 어린 기도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머릿 속을 맴도는 생각 하나, '우리 왜 중국을 가는 거지?' '왜'라는 질문이 자꾸 던져진다. 대안학교들이 자주 비판 돈을 들어 해외로 나간다고 폄하되는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다. 해외 이동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믿긴 하지만, 비용과 노력에 비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을지 나도 장담할 수 없었다. 새내기 교사인 나에게 해외 이동 수업은 처음인 것이다.

각오를 하고 가진 했지만, 시설은 조금 열악한 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도 교사들도 눈빛이 편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복이 많은 가보다. 이런 좋은 곳에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다니... 너무나 좋은 원장님과 직원 분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크는 홍예원(봉성고아원 이름) 아이들.

늦봄아이들은 자신들이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홍예원 식구들에게 미안해했다. 그건 간식을 많이 주어서 그런 건 아

니다. (아니, 사실 이런 면도 있다. 없는 살림에 정말 아깝잖아 주었다. 특히 손달 동안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다녀와야 할 텐데... 한 어린 기도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머릿 속을 맴도는 생각 하나, '우리 왜 중국을 가는 거지?' '왜'라는 질문이 자꾸 던져진다. 대안학교들이 자주 비판 돈을 들어 해외로 나간다고 폄하되는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다. 해외 이동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믿긴 하지만, 비용과 노력에 비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을지 나도 장담할 수 없었다. 새내기 교사인 나에게 해외 이동 수업은 처음인 것이다.

우리는 백두산의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해 못 볼 줄 알았다. 천지를 보는 순간, 그때의 기분이란...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아이들은 천지 물도 마시고, 손수제비도 뜨고, 사진도 찍으며 백두산에 쌓여있는 6월의 눈과 함께 맑아졌다. 아이들은 기행 일지에 '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기록했다.

보통 아이들을 데리고 유적지를 가면 시큰둥하다. 그건 자신과 상관없는 먼 옛날의 흔적일 뿐이니까. 그런데 광개토대왕비루, 장수왕릉, 국내성, 환도산성, 오녀산성, 박작성 등 고구려·발해 유적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은 신기함으로 반짝거렸다. 일단 책에서만 본 아주 유명한 유적지를 보는 것이 신기했다고 애

기했고, 이 유적들이 과거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라 걸 현실로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 속 유적을 보면서 중국인 가이드의 안내(감시?)를 받아야만 하는 현실에서 동북공정이 피부로 다가온 듯했다. 그 이상의 생각은 돌아와서 더 깊어지겠다.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가며 북녘 땅을 바라보았다. 북한 사람이 보일 때마다 아이들은 열심을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다. 눈앞에 바로 보이는 분단의 현실을 어떻게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아이들은 중국의 큰 규모에, 생각보다 깨끗하고 발전된 시설에 놀라워했다. 앞으로 중국은 미우나 고우나 함께 해야 할 나라이다. 아이들의 머릿 속에 중국의 구체적인 상이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건 이제 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천부두에서 '우리는 왜 중국에 가는 거?'라는 질문을 던졌었다. 중국을 다녀와서 요즘 2학년 아이들은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든다. 학기 초 3월과는 너무나 달라져있다. 학기 초 아이들은 이런 저런 갈등과 사고(?)로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시끌 벅적 지냈다. 보통 중2라는

시기가 이런 시기이고 우리 2기 아이들이 워낙 활발하고 에너지가 많은 편이라 더욱 그러했다. '아, 이 녀석들 언제 철들라나'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느낌은 뭐랄까, 눈빛이 깊어졌다라는 느낌이 든다. 중국이 동학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 시기가 주는 성장의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여행은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해주고, 일상에서는 놓쳤던 어떤 부분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 아이들은 중국 여행을 통해서 나와 마주치고, 나를 둘러싼 세상과 마주치고 왔다. 그것도 책임 아닌 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별 5개 만점에 4개 반의 별점을 주고 싶다. (참고로 아이들의 중국이동학습에 대한 평가도 별 4개이다.) 또 다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나의 속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흐뭇해진다. 이걸로 우리가 중국에 갔다 온 이유는 충분한 것 같다.

길잡이 교사 달빛(이선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원만한 토론회, 냉혹한 현실

7월 18일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가 맡은 주제는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이였다. 기본적인 자유권 조차 누리고 있지 못한 아이들에게 건강과 안전의 문제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발표문을 준비하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여름 들어 제일 무더웠던 날씨, 아스팔트와 건물로 뒤덮인 학교, 복잡한 생각 등이 얹히면서 무척이나 무겁고 지친 마음으로 토론회장에 들어갔다.

다행히 울산에서 청소년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몇 명의 활동가들이 같이 왔기에 수다를 떨며 조금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토론회장의 산뜻한 분위기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일까? 부산, 울산, 경남의 3개 교육청 공동주최로 알았던 토론회는 경남교육청만의 행사로 되어 있었다. 막후의 사정이 있어 보였는데,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이 정도의 행사도 참여하지 못하는 두 교육청의 속 좁음에 실망할 따름이다.

대부분의 발표자는 성적지상주의와 권위주의에 물든 학교 현실을 비판했고, 제대로 된 소통 없이 학교는 학생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제만 하고 있어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

대라는 인식을 비슷하게 갖고 있었다. 발표자 간에 특색 있었던 얘기를 소개하면, 먼저 수년간 학생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어느 현직교사는 더 이상 학교만의 힘만으로는 학생인권 보장이 힘드니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조금은 우울한 제안을 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 교장을 했었다는 어느 교육연구소 이사장은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동의 인권과 안전에 큰 힘이 된다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마도 이날 토론회 중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현실 인식과 방안 제시를 하지 않았나 싶다.

울산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을 한다는 청소년

활동가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대해 지적했는데, 특히 성소수자의 차별사례를 소개했다. 토론회 내내 청소년을 여전히 통제 내지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에 답답해 했던 그는 울산으로 오는 차안에 서도 열변을 토했다. 나의 발표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 중 ‘체벌도 학교 폭력이다’라는 표현이 쟁점이 되는 듯 했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 버렸다.

토론회가 끝날 무렵,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참석한 교사들이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토론회 내내 마음이 무겁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나마 열심히 아이들과 어울리는 교사들과 다

들 문제는 아니기에 대체로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정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의견 대립은 있었지만 상호 이해하는 원만한 토론회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하지만 원만한 토론회와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다. 학생인권 토론회가 열렸던 7월 18일, 부산지역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수십 명의 학생이 교사에게 강제 삭발 당하고, 머리 길이를 수행평가 성적에 반영하고, 이에 저항하는 학생에게 퇴학 협박을 했다는 뉴스가 인터넷 포털화면을 장식했다.

학생 인권 보장, 이제 새로 시작이긴 한데 현실은 참 버겁다.

고영호(울산지부장)



● 침해받는 기본권을 찾기 위해

‘0교시, 우열반 편성에 의한 학습권, 평등권 침해’ 민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우리회가 4.15 학교 자율화 조치로 인하여 교육의 평등권과 학습권을 침해받은 사례를 모집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자율학습 명목의 야간 강제 자율학습과 수준별 수업 명목의 우열반 편성은 그 자체로 반 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말살하는 획일화된 교육으로서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우열반을 편성하여 아이들을 무한 성적경쟁을 강요하여 학교를 황폐화하고 사설학원의 강사를 초빙하여 보충수업비를 강제 징수하는 등 입시교육을 앞세워 학교 수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선택권은 평준화를 해체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이런속에서 학교에선 부작용이 도태를 위해 별점제를 통한 퇴학 및 전학 강요하는 등의 비교육적이면서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0교시·야간 강제 자율학습, 강제 보충수업, 우열반 편성 등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외관상으로는 교육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교육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격권,

평등권, 학습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병춘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우리회는 원고인을 구성하여 사립학교의 경우엔 학교법인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엔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므로써, 정부로 하여금 3% 학생만을 위한 차별교육과 학교의 학원화를 통해 공교육체제를 무너뜨리려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철회하여 교육 평등권과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하기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0교시·야간 강제 자율학습, 강제 보충수업, 우열반 편성 사례

- 0교시 수업하는 학교
- 우열반 편성한 학교
- 입시준비를 위한 야간 강제보충수업, 방학중 강제 보충수업 (불참할 경우, 학부모의 동의서 요구), 보충수업비 강제 징수, 보충수업에 학원강사 초빙하여 수업, 부교재 강매 등
- 보충수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대입추천서·수행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사례
- 야간자율학습에 불참하거나 딴 짓을 할 경우 제벌한 사례
- 급식실 우반 학생 우선 식사 기회 부여, 도서관 우반만 특별 허용, 도서관 이용료 부과 등에서 차별받은 사례
- 별점제를 이용하여 부적응아를 퇴학시키거나, 전학 강요받은 사례

※변호인단 구성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중심으로 공개 모집
- 민변의 공익소송 기금 활용

※원고인 모집

- 우리회 통하여 접수한 상담사례나 회원의 자녀 학교등 누구나 환영
- 인지대 등 원고인 소송비용은 1인당 5,000원 정도로 최소화 예정
- 학생이 미성년일 경우, 학부모 쌍방의 동의 필요, 그러나 먼저 소장을 제출한 후에 추후 보완도 가능

※문의: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 02-393-8900

교육정보공시제, 무엇이 문제인가?

알권리 뒤에 숨겨진 ‘서열화의 욕구’

교육정보공시제 입법배경

이 법안의 입법동기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비판논쟁으로부터 제기되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 학력을 하향화시킨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한동안 언론을 통해서, 또 보수적인 시각을 갖는 경제단체나 교육관련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실증적인 연구(성기선,1999, 2001, 2002)는 평준화가 학력 하향화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에 반하는 연구결과 한편이 뒤이어 등장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이라는 제목 하에 제시된 KDI 연구결과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실시로 인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곧 보수언론을 통해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공표되어 평준화가 학력하향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또 다른 계기를 제공했다(김태중 외,2004). 물론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이 되어 평준화에 대한 디스커션그룹이 만들어져 평준화 전반에 대한 다학문적 논의를 했고, 종단적, 횡단적 연구 설계를 한 계량적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여 평준화가 학력 하향화와는 무관하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김기석, 2005;강상진,2005).

그런데 김태중 외(2004)의 연구는 연구결과와는 별도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취도 자료이며 불법유통 의혹이 제기되었고 교육부는 이 문제로 인해 연구자들을 고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와중에 연구진 가운데 한 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성취도 자료를 둘러싼 교육부와 의 신경전이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계기로 작동하였던 것이다. 평가원에서 관리하던 전국 수준의 성취도

조사 자료를 허락 없이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연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학교의 성취도 자료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법안은 한편으로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이 항시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전히 학업성취도 결과의 공개와 그 수준에 대한 사항이다. 단위학교의 성적을 공개해야 하는가? 이 법안은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다른 어떤 측면에 대한 관심보다 우선적으로 성적을 공개하고 학교의 잘 잘못을 이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교원의 책무성 역시 이 성적 자료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점이 너무나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교육정보공시 내용과 문제점

공시되어야 할 정보의 범주는 특례법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먼저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5조 1항 4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지는 모르겠지만 극단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4번 항목의 경우, 학교의 성적관리 규정과 교과별 학업성취도 수준을 담을 수 있다. 이 경우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수준은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이라고 하는 4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이 경우 개별 학교에서 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를 근간을 할 것인가? 또한 교과목별 교육목표 준거(standard)를 설정하여 이 준거에 대한 도달여부를 보는 절대평가 방식인가, 아니면 학생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는 상대평가방식인가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 교과목별로 도달해야 하는 성취목표와 준거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그것의 달성 정도를 알려주는 시험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

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일 가능성이 높고, 교육정보공시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학교수준의 평가가 아닌 전국단위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의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12조에서 절정을 이룬다. 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쉽게 풀어보면 학술연구를 위해 학교수준의 성취도 자료를 공개하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이 법안의 입법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국 단위의 학교와 학생들의 성취도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필요는 연구자 역시 교육정보에 대한 주요 수요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거주지별 계층고착화 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비과학적인 정보의 공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학교의 질로 투사하게 되며 지역간 격차, 계층간 격차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시행령은 위에서 지정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학교자율화, 교육의 지방

자치, 학교교육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들은 이 법안이 어떠한 결과를 내어 놓는가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사교육은 학교·학생 서열화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만약 학교별 성취도 결과 공표가 기정 사실화된다면 그것이 교육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은 실로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부정적일 것이다. 또 다른 촛불집회가 생겨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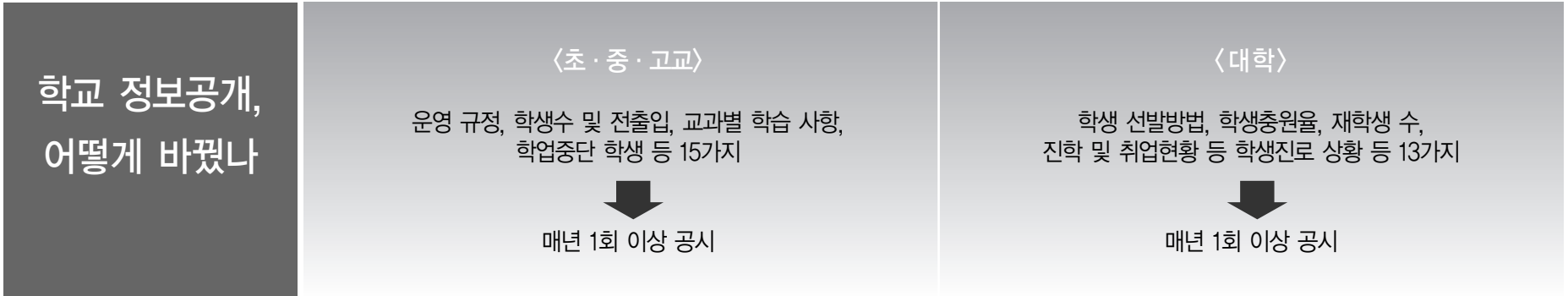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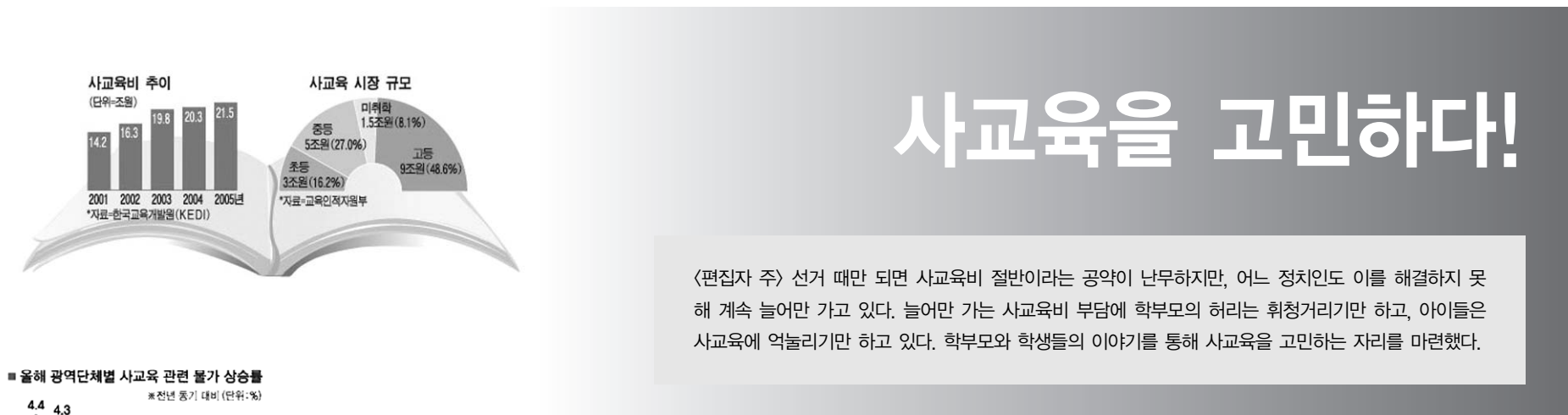
‘교육정보공개법’은 학교교육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 학교별 성적 공개 범위, 내용,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각계 전문가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더 거쳐야만 한다.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는 일단 유보하고, 정책연구 자료로 사용하여 학교간 격차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과학적 방법에 의한 연구 없이 원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단계별로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학교가 무엇이 부족한지 진단하고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점차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성기선(가톨릭대학교 교수)

〈편집자 주〉 지난 2007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교육관련 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예정대로라면 특례법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8년 5월 공표되어 시행되어야 했으나 지난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새 정부 들어서 백지화되고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인수위시절 청와대 이주호 수석의 ‘학교별 성적 공개’에 대한 발언으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었다. 특례법에 따른 성적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평준화 와해 등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학교별 명칭은 제외하고 공개한다’는 특례법 제 5조 2항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7월 23일 시점에서 민주당 안민석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표한 성기선 교수(카톨릭대 교수)의 발제문을 요약 소개한다.





학부모 입장에서 본 사교육의 의미

이 땅에서 학부모로 산다는 것

이 땅에서 자녀를 키우며 살아야 하는 모든 학부모는 교육전문가 아니 입시전문가가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부모노릇을 제대로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교육의 근본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 나라 교육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은 내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모든 학부모가 교육 내용과 입시제도 더 나아가 100위위 점수가 얼마고 표준편차가 어떻고 하는 등 성적 산출 방법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교육이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내 자식 내가 제대로 키워놓지 못하면 사람 구실은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 사회다. 부실한 아니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회안전망과 때로는 숨겨주 때로는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 사회를 20:80에서 10:90을 넘어 1:99로 극단적인 양극화와 동시에 계층을 고착시키는 모습을 나날이 체험하는 학부모가 달리 어찌 할 방도가 있을까? 계층의 고착과 단조로움이 사회 건강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본적 문제에는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

방학은 괴로워

아이들이 그나마 학교에 다닐 때는 어쨌거나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시간을 부모가 관리해 주어야 한다. 공부는 물론이고 노는 시간과 체험학습 시간까지. 특별한 재주나 소질이 있다면 모를까 (그 경우도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들 하는 소리를 듣기

는 하지만) 아이의 공부습관을 다 잡아주는 일은 기본이고 학원을 골라 지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고 새 학기에 배워야 할 것을 미리 훑어보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다. 결국 방학 동안에는 더 많은 사교육비를 쏟아 부어야 한다. 방학 동안에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건강한 심신과 적응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그 구체적 방법도 알 수가 없고 정말 그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방안은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게다가 새 정부 들어서는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적어도 방학 동안만이라도 해외로 어학연수를 꼭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능력이 되지 않음이 오히려 안타까움을 넘어 좌이된 느낌이다. '방학 스트레스'라는 말이 달리 생긴 게 아니다.

우리의 교육 현실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에 달하고 대학진학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100%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어느 학교 어느 과를 가느냐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점차 교육의 질적 차별화를 드러내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라든가 영어공교육강화 정책 따위가 결국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다시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자율'과 '경쟁'이라고 그럴 듯한 포장을 쓰고 있지만 결국 특목고-자사고-기숙형 공립고-일반고-실업계고라는 서열로 위계화가 될 것이며, '이태백', '88만원 세대'란 말로 드러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달리 있을까?

송환웅(언론정보출판위원장)

사교육, 아무 것도 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Q.가족구성원을 소개해 주세요.

저와 남편 그리고 고1 딸 하나와 중1 아들. 이렇게 네 식구랍니다.

Q.이제까지 어떤 사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신가요?

두 아이 다 초등학교 때는 피아노를 주 3회(월, 수, 금) 그리고 수학도 역시 주 3회(월, 수, 금) 거기다 영어는 주 2회(화, 목) 학원에 보냈습니다. 지금은 고1 딸의 경우 주 4회(월, 수, 금, 토)영어와 언어를 학원에서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주 2회(화, 목)개인과외를 시키고 있으며, 중1 아들은 주 3회(월, 수, 금)수학 그리고 주 2회(화, 목)영어 과외를 시키고 있어요.

Q.자녀에 대해 굉장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요.

Q.자녀의 평균적인 하루 생활 모습은 어떤가요?

딸(고1)은 보통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7시 50분까지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월 수 금 토요일의 경우는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한 다음, 2시간 학원수업을 받고 새벽 1시 반쯤 집에 돌아와 2시 쯤 넘어서 잠자리에 듭니다. 화 목요일의 경우에는 저녁 7시에 집에 와서 개인과외를 2시간 받고 복습 등을 한 다음 12시 쯤 잠자리에 듭니다. 아들(중1)은 대강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8시 20분까지 학교에 갑니다. 오후 4시 쯤 집에 돌아와 월 수 금요일에는 수학 과외를 그리고 화 목요일에는 영어 과외를 2시간 한 다음 7시 쯤 저녁을 먹고 쉬다가 학교 숙제를 마치고 12시 쯤 잠자리에 들지요.

Q.가주 총 수입 중 사교육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이신지요?

월 평균 150만 원 정도 듭니다.

Q.자녀에게 시키고 계신 사교육 중에서 학교에서 제대로만 해준다면 안 해도 될 것 같은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과의 모든 것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아이도 힘들고 저도 여러 가지로 힘에 부칩니다.

Q.학교에서 제대로 해준다고 해도 계속 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내용과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입시위주의 우리교육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대로 할 수밖에

Q.다른 학부모들은 사교육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자녀교육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지요.

Q.사교육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어머니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계시다면 말씀해 주

정리 : 언론정보출판위원회

“중학생이 생각하는 사교육”

요즘 내가 너네 나이일 때는,
들판에서 뛰어놀고 강에서 헤엄쳤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과 주위 어른들의
말씀도 짜증이 날 때가 많다.

“그건 그 때 얘기죠! 그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던가요!”

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나 스스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자사고에 가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의 말씀-특히 꼴통이 된다는 부분-은 충격적이었다.

요즘 내가 너네 나이일 때는, 들판에서 뛰어놀고 강에서 헤엄쳤는데...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과 주위 어른들의 말씀도 짜증이 날 때가 많다. “그건 그 때 얘기죠! 그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던가요!” 하고 대들고 싶을 때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내 친구 한명의 하루를 보자. 시험기간이 아닌 테도 학교 숙제나 수행평가가 있을 때는 새벽 6시 쯤에 일어나서 숙제를 하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간다. 학원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은 다음, 종합학원에 5시에 가서 11시 쯤 집에 온다. 재시험 -갈 때마다 보는 시험의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지 못하면 남아서 보는 시험-을 보게 되면 12시 쯤 집에 온다고 한다.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면 1시, 2시가 된다. 보통 잠자는 시간은 5시간 정도라고 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해졌다. 어른들은 우리보고 많이 자야지 키가 크다, 면역력이 강해진다, 말은 많이 하면서 왜 우리가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걸까?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학원에서 입시위주의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과연 글로벌리더가 될 수 있을까?

특목고 중 하나인 외고에 들어가기 위한 전형으로는 보통 구술·면접시험과 영어듣기가 있다. 하지만 그 구술·면접시험은 형식적으로는 구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필고사를 본 후 그 답을 면접실에서 부르고 간단한 이유를 말하는 정도이다. 또, 영어듣기의 난이도는 수능보다 어렵다고 한다. 학원의 도움 없이는 준비하기 어려운 이런 특목고의 입시전형은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목고를 늘리면 절감될 거라고? 특목고와 자사고를 더 늘릴 거라는 얘기를 듣고 더 많은 내 친구들이 외고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내신이 부족하더라도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으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외고전문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내 친구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것은 역효과만 내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고, 그나마만 고등학교에서 좋은 수학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학생의 입장으로 어른들에게 부탁이 있다. 학생들도 나름의 꿈과 소위 말하는 비전이 있다. 아무리 어렵고 각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두 알고 있다. 아직 찾지 못했거나, 잘 말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나는 그나마 성적 같은 부분에 개방적인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데로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답답하다.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잘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나머지는 뒤에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학원은 물론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만들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것은 공부 이전에 우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바라고 공부해라, 학원 다녀라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조금만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김민주 (중학교 2학년)

“공부 너무 많이하는 것은 정말 싫어!”

요즘 눈썹 옆머리 거세서 벌써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반 친구에게 물어봐도, 10명중에 9명이 학원을 다닌다고 할 정도다. 학원을 다니면 물론 배우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성적이 오를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많다.

첫째, 어떤 인터넷 학습사이트에서는 담임교사가 주마다 한 번씩 전화를 걸어 학생들이 학습을 잘 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화가 1달 또는 2달에 한 번씩 오는 걸 보면, 학생에 대한 관심이 허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1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 학습통지서에는 강의 수강현황, 출석현황이 나타나 있을 뿐,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이 학

습통지서는 엉터리'라고 말씀하신다.

셋째, 내가 학습하고 있는 사이트에 질문을 올린 적이 있는데, 답변이 너무 늦게 와서 실망했다. 직접 만날 수 없는 인터넷 학습사이트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이 아닌 학원은 문제가 더 많다. 우선,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가 너무 많다. 내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과목당 A4 1장에서 1장 반 정도의 숙제를 낸다. 학원 숙제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자유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뭐 하러 숙제를 이렇게 많이 내주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귀가시간도 너무 늦다. 시험 기간 중에는 학원이 9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숙제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잠도 잘 수가 없어서 학원에 다니기

싫다고 한다. 학생들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는 학원이 정말 이상하다.

학원에서는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은 다 할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원의 교육방식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학원공부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계속 학원을 다닌 학생이 사회에 나간다면 스스로 알아서 일처리를 하는 능력이 떨어져, 취직 또는 회사생활에서 불리함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일처리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은 없으니... 내가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것이 다행으로 여겨진다.

엄마는 항상 "스스로 공부 해야지,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학원을 다녀야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지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친구들이 이제부터라도 학원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공부를 하면 어떨까?

황병식 (중학교 1학년)



7월 지부·지회 활동

거제지회

참학거제지회 창립10주년행사및 임시총회



지난 6월26일 참학거제지회 창립 10주년행사및 임시총회 잘 마쳤습니다. 서둘지만 열심히 준비한 동영상이 자료가 극적으로 실행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10년 발자취를 보면서 새삼스러웠습니다.

이경미 전 지회장님도 참석해주셨고 멀리 본부 윤숙자회장님의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강의도 있었습니다. 경남지부장님, 부지

부장, 정책실장님께서도 늦게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식사 준비해 놓고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하메세지를 보내주신 지부지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임시총회에서 지회장 선출건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현수막을 지원해주신 김숙희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0년동안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덕분에 지금의 참학이 자리매김할수 있었습니다. 12월 총회때 참석못하신 회원분들과 함께 할수 있길 기대합니다.

천안지회

친환경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진행



광우병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이슈화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문제도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지회는 천안학교급식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친환경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지난 7월 16일 진행했습니다.

당일날에는 천안 시청과 천안교육청, 천안학교영양교사협회, 그리고 관계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친환경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경남지부

전교조 선생님들과 참교육학부모회 어머니들, 경남의 17개 시·군 어린이와 유아들을 위한 인형극 순회공연



전교조 선생님들과 참교육학부모회 어머니들이 경남의 17개 시·군으로 어린이와 유아들을 위한 인형극 순회공연을 나섰다

유치원교사와 특수교사 학교 내 비정규직인 특수보조원, 유치원종일반 교육개 강사, 그리고 참교육학부모회 어머니들과 학교 도서관 도우미 어머니들로

구성된 피노키오 인형극회가 전교조 경남지부의 지원을 받고 참교육학부모회의 도움으로 경남의 17개 시·군에서 1만2천여 명의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인형극 순회공연을 벌인다.

2007년 전교조 경남지부는 인형극 전문극단을 초청하여 10개 시·군에서 7천여 명의 유아와 어린이 교사들에게 재미있고 예술적인 인형극을 선물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성남지회

환경을 생각하는 7월 강좌: 비누 만들기



성남지회는 환경을 생각하는 7월강좌로 비누만들기를 진행했다. 환경이 오염되면서 아이들의 아토피가 나날이 증가하는 요즘 친환경 비누로 아이들의 피부를 지켜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당일날 세수비누와 빨래비누를 만들었습니다. 폐식용유로 만드는 친환경비누는 아토피 해결뿐 만 아니라 우리 환경을 지켜주는 지름길 입니다.

파주지회

여름캠프 <숲에 내(我)가 있어요.. 엄마와 느끼는 자연의 힘>



파주지회가 7월 25~26일동안 여름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지친 아이들과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심표를 찍고 싶은 엄마들이 숲으로 갔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마음을 열고 물놀이도 실컷하고 과학과 수학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전통 목공, 떡 만들기 체험도 그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2008년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지원사업

‘벽을 넘어, 인권으로’

제5회가고싶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 문화만들기” 공모전

학생 · 청소년 · 학부모 · 교사대상

응모내용

- 체벌 · 단체기합 · 언어폭력 · 성폭력 없는 학교가 되기 위한 교사와 학생간에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 및 아이디어
- 학교 내 왕따 ·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청소년 스스로의 실천 사례 및 해결방안
- 용의복장(두발 · 교복자유)과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메시지, 사회에 전하고 싶은 내용
- 학교자치(학생회 · 학생동아리)활동 활성화에 관한 실제 사례 및 대안제시
- 학칙제정과 학생생활규정의 학생참여에 대한 생각과 의견
- 강제학습(0교시 · 보충학습 ·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과 의견
- 시험 · 성적에 관한 생각과 의견
- 기타: 인권에 관한 모든 주제

응모기간

- 2008년 11월 21일까지

참가대상

- 개인(초 · 중 · 고교생, 청소년, 학부모, 교사)
- 단체(동아리, 어린이회, 학생회, 기타자치기구)

응모분야

- 영상(동영상, 플래시애니메이션, 사진), 그림(포스터, 만화), 글(수필, 시, 주장글)

응모방법

- 플레시 애니메이션 : 700 X 530 픽셀, 런닝타임 1분 30초~5분 이내, 해상도 72 dpi이상, 'swf'로 저장한 CD 제출
- 동영상 : 런닝타임 10분이내, 출력크기 320X420, CD 제출
- 주장하는 글 · 수필 : 원고지 10매 이상 분량으로 CD 제출이나 e-mail 발송
- 시 : 제한없음, CD 제출이나 e-mail 발송
- 그림, 만화, 포스터: 제한없음, 원본이나 CD(jpg파일)제출

제출방법

우편, 방문, e-mail(sangdam310@empal.com) 접수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층 T. 02-393-8900

입상작발표

- 2007년 12월 10일까지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시상내역

- 영상, 그림, 글 3개부문
- 교육공동체상(학교, 학동동아리, 학생 · 학부모 · 교사 협동작품) 1개(총1개) : 상장 및 70만원 상당의 상품
- 더불어상 각 부문별 1개(총3개) : 상장 및 40만원 상당의 상품
- 인권상 각 부문별 2개(총6개) : 상장 및 30만원 상당의 상품
- 아이디어상 각 부문별 3개(총9개) : 상장 및 20만원 상당의 상품
- 희망상 각 부문별 10개(총30개) : 상장 및 10만원 상당의 상품
- 참가상 : 시상식 참가자 전원(기념품)

시상식

- 2007년 12월(홈페이지 공고 및 당선자 개별 통보)

유의사항

- 참가자는 반드시 소속기관, 주소, 연락처(집, 핸드폰, 부모님연락처 포함), e-mail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참가신청서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 귀속됩니다.
- 국내외 미 발표작이어야 합니다.
- 해당부문 수상작이 없을 경우 다른 분야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주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한겨레신문사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가?



‘안승문의 스웨덴 — 핀란드 교육이야기’

③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구매해야 할 서비스 상품으로 생각하며, 학원교육을 학교에 끌어들이려 하는 시장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학교는 무엇을 하는 기관이어야 하는가? 학교교육이 지향할 목표와 가치는 무엇인가? 학교교육에 대한 스웨덴의 관점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스웨덴 교육법은 학교 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의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을 촉진시키고, 가정과 협력하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발달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법 1장 2조)

이를 위해 학교는 관심과 배려와 관용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학교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발달시키는 일을 지원해야 하며, 학교와 가정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활기찬 학습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활동과 놀이가 중요하며, 매일 적절한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교는 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가치를 전수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거대한 정보의 홍수와 급변하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관점이나 입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사실과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다양한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를 통찰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언어와 학습, 개인의 정체성 발달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토론하고 읽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고, 언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학교는 또, 학생들이 보편적이고 일관된 관점을 갖도록 하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며, 스스로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놀이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은 학생들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도록 해야 한다. 변화의 맥락에서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갖게 하는 역사적인 관점, 자신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지구적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갖게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 사회의 기능, 생활 방식, 작업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등 환경적인 관점을 길러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는 학생들이 자기 현실을 세계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국제적인 관점을 갖고, 국제 연대를 만들어내며, 문화와 국경을 넘어 긴밀하게 접촉하게 될 미래에 대비하며,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야 한다. 학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윤리적 관점도 길러주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의 개념이나 구성요소, 학습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지식들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 과정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경험들과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통해서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들은 일관된 전체를 이루어야 한다.

학교교육은 지적인 면만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감각적이며 미학적인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표현 형식을 시도해 보고 개발하며, 느낌과 분위기를 경험하도록 격려하고, 자기 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연극, 몸짓, 무용, 음악 그리고 미술 창작, 글쓰기, 디자인 등은 모두 교육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발달과 교육이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형의 지식과 경험을 탐구하고, 조사하고, 습득하고, 표현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안승문 (스웨덴 옉살라대학 객원연구원)

(편집자 주) 이 연재를 통해서 필자는, 복지국가의 원조인 스웨덴과 세계 최고수준의 학교교육으로 인정받는 핀란드 등 북유럽의 교육과 복지에 관한 생생한 정보와 사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재를 통해, 모든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 국가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학부모일기

사춘기 자녀를 둔 좋은 부모란 어떤 유형의 부모일까?

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만의 잣대로 아이를 평가하고 내가 원하는바 대로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기 위해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찾아가 듣고 책도 읽으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애쓰고 있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고나 할까? 이런 생각 자체도 어찌면 내 생각일 뿐 아이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얼마 전 신문에서 엄마 vs 자녀 '사춘기 전쟁' 이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부모와의 대화에서 말을 걸면 피하거나 짜증내며 대답한다.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 자주하는 말이나 행동을 읽으며 깊이 공감이 가더라. 부모와 대화하기 싫으면 방문을 닫고 숨어버린다.

학교에선 밝게 지내면서 집에만 오면 짜증을 부리고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면 “몰라. 묻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놔 둬.”라고 하며 간섭한다 싶으면 통명스

럽게 말대꾸를 한다. 이 기사를 읽으며 ‘우리 딸만 유별난 게 아니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시대의 사춘기 때에는 영화와, 소셜 음악을 보고 들으며 까닭 없이 눈물짓고 방과 후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뺑집이나 떡볶이 집에 가고 미팅을 많이 했다. 또한 멋있는 교복을 입는 것이 꿈쩍이 싫었다.

부모와의 대화에서도 형제가 많아 부모가 참견 안하는 것이 오히려 섭섭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대화자체가 적어 반항하거나 대들지 못했었다. 우리시대에는 주 고민이 외모와 이성이었다면 성적을 주로 고민하고 요즘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춘기가 오면서 주로 성적을 고민한다.

큰 딸아이가 올해 중학생이 되었다. 처음 한두 달은 엄마인 내가 중학생이 된 것처럼 긴장된 나날들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1시간이 넘게 재잘재잘 거리던 수다쟁이 소녀가 어느 날인가 부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어쩔 땐

방문을 잠그기 까지 했다. 별거 아닌 일에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고, 말끝마다 “귀찮아, 귀찮아.” 한다.

중학생이 되면서 종합학원에 다니고 부터 시간에 쫓겨다니는 것 같았다. 학교 마치고 와서는 어쩔 땐 저녁밥도 못 먹고 학원으로 달려가서 11시나 되어서 돌아오는 아이를 보며 결론을 내렸다. 종합학원을 그만두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딸아인 예전의 수다쟁이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또 불쑥 짜증을 부려 온 가족을 당황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사춘기라 그러려니 하고 만다.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도 참 별스럽게 하는 것 같다.

◆ 정정보도
지난 203호 학부모일기 '기분을 챙기지 못한 엄마의 초등학생 입학보고서'의 필자명이 다르게 나갔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명은 남혜진(의정부지회 회원)입니다.

중학생 언니를 둔 4살짜리 꼬마가 엄마에게 묻는 말 “엄마! 언니 사춘기 언제 끝나?” 엄마들 모임에 가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들. “아이들 비위 맞추느라 도 닦고 있어.”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들과 과중한 학습량에서 우리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받아주고 감싸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란(의정부지회 회원)



매그넬 코리아 MAGNUM KOREA 전



□ 2008년 7월 4일 - 8월24일
□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사진을 찍는 이들에게 유명한 <매그넬>은 세계 최고의 다큐멘터리 사진가 그룹을 말한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로버트 카파의 주도아래 냉전체제하에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자유로운 사진을 찍기위해 47년 설립되었다. 리포터와 예술가가 결합된 이들의 사진은 세계 역사의 현장을 보고 불공정하거나 위대한 순간을 세상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400여명이 넘는 소속회원 중 20명이 '한국'을 주제로 찍은 사진 430여점을 전시하는 이번 전시회는 다른 이들의 시선에 포착된 우리들의 삶의 풍경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08 여름 청소년철학교실

□ 주최 : 전남대 BK21 철학교육사업단 / 철학연구교육센터
□ 문의 : 010-3701-8664)
□ 대상 : 논술과 철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

- ♣ ‘동양철학으로 읽는 우리 시대’
 - 2008년 8월 18일까지 매주 월 저녁 7:30 - 9시 30분
 - 전남대 인문대 1호관 303호에서 영화 ‘엑스맨’ 과 ‘하일랜드’, 사마천의 ‘사기’를 보고 동양 철학을 통해 촛불집회의 의미를 찾아본다.
- ♣ ‘고대의 철학자들과 함께 지중해 연안을 걷다’
 - 8월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9시30분(인문대 1호관 103호)
 - 서양철학의 흐름을 더듬어 본다.
- ♣ ‘서양철학 고전으로 인간 읽기’
 - 8월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9시30분(인문대 1호관 103호)
 - 서양철학을 읽으며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 ♣ ‘정치와 권리’ - 토요일서모임
 - 8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 7시30~9시30분(인문대 1호관 210호)
- ♣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 논술을 배우는 시간’
 - 8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10시
 -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한 후 글을 써보는 시간으로

☞ 민들레에서 나온 새 책을 소개 합니다

☐ 솔빛엄마의 부모 내공 키우기
옆집 엄마에게 휘둘리지 않고 아이 키우는 “학교교육과 사교육에서 자유롭고 싶은 부모님들, 아이와 소통하고 싶은 부모님들, 아이와 자신의 성장을 함께 꿈꾸는 부모님들을 권합니다.”

- 글쓴이: 솔빛엄마 이남수
- 책크기: 신국판 변형(153×215)
- 분 량: 304쪽
- ISBN 978-89-88613-28-3
- 펴낸날: 2008년 7월 28일

♣ 출판사 책 소개

이 땅에서 옆집 아줌마에, 사교육 열풍에 휘둘리지 않고 아이를 키우기는 참으로 힘든 노릇이다. 아이와 소통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이 책은 부모와 아이의 갈등을 만드는 주범인 학교교육, 사교육 문제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마냥 아이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는 단단한 아이로 키우는 일에 도움을 준다.

또한 아이 키우기를 통해 이남수씨 자신이 어떻게 변하고 성장해 갔는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진솔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땅의 부모들과 휘둘리지 않고 내공 있는 부모가 되는 지혜를 찾고자 한다.

♣ 기존의 부모교육서와 어떻게 다른가

- *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 일등하는 아이로 만드는 교육서가 아니다
- *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고 학교에서도 자기중심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책
- * ‘좋은 부모 강박증’에서 벗어난 한 평범한 엄마의 가슴 찡한 성장기이자 아이와 함께한 길 찾기의 기록!
- *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아이,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책

♣ 영어교육으로 유명한 ‘솔빛이네 엄마표 영어연수’의 저자 이남수씨가 영어 이야기 말고 진짜로 더 하고 싶었던 ‘부모 교육’ 이야기



옆집 엄마에게 휘둘리지 않고 아이 키우는 법
이름: 민들레
출판사: 민들레



오랫동안 지속되는 따돌림

Q 중학교 2학년 남자 아이를 둔 아빠이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해 왔다고 한다. 아이 엄마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나는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가족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문제가 많았나 보다. 어려서부터 큰 형님이 어머니에게 큰소리치며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자란 영향으로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행동을 많이 했나 보다.

현재 우리 아이는 학급 부회장을 맡고 있다. 회장과 그 주변 아이들이 주도하여 아이를 따돌리나 보다. 40명의 반 아이들 중에서 애기를 하고 지내는 아이들은 겨우 4~5명 정도라고 한다.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한단다. 급식 먹을 때도 “저 쪽 구석에 가서 혼자 먹어라”라고 한단다. 그래서 점심, 저녁 시간에 거의 혼자서 밥을 먹는다고 한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상처도 그렇지만, 그 애기를 아빠인 나에게 못하고 속으로 끔프 앓았을 아이의 심정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가 변화해야 아이도 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좋은 아버지 학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전 보다는 괜찮아졌다고 하며 조금 더 견뎌보겠다고 한다. 정신과에서 심리검사를 받아 보았는데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가해 아이들에 대한 징계 등으로 끝나 오히려 아이가 더 고립되는 상황이 될까 걱정이 된다. 아이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그런데 이 모든 감정적 양금이 가시려 아버지께서 위 사실을 알고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있으신 아이가 곧 밝은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집단따돌림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교사나 학부모가 도움을 주려고 나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섬부르게 개입했다가는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아이들을 더 괴롭게 만들기도 하지요. 지속적인 집단따돌림은 아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입니다.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의하여 아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와 달리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집단따돌림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결 과정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청소년 문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상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집단따돌림 문제를 학교에 알리지 않고 가정에서만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담임교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급우들 간에 일어난 일일뿐더러 담임교사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교실 분위기도, 아이들의 생각도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또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에도 담임선생님이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인지도 담임교사와 상의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오랫동안 받은 상처로 인해 상실된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야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거부하고 폭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교사들은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고 나아가 공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묵묵히 견디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요. 이 과정을 함께 도와 줄 갈등주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의 상담소를 알려드리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루 빨리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져 아이가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제공 : 학부모상담실

세상에 이런 일이!!! 교실 안 담임교사 성폭력사건

최근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가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만도 십수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배려 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리라 믿고 있는 학교 교실이라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에 우리지역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간혹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성폭력사건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어린학생 다수를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공격적인 교실, 수업시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에 더욱 더 경악케 한다.

피해학부모들은 해당 학교장에게 사건을 알리고 사태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가해교사의 사직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했고 교육청 또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는커녕 사직처리의 절차도 무시한 채 하루

만에 성폭력교사의 사직을 수리했다.

우리지회는 피해학부모들로부터 이 사건을 접하고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여 기자회견 및 교육청, 경찰서를 방문 철저한 진상조사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 사건 은폐에 급급했던 해당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관련 교사에게 항의면담을 했다.

아이들의 경찰조사가 끝난 때까지도 도주 중인 가해교사는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 만에 붙잡혔고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피해학부모들의 가해교사 사직무효화 및 파면, 학교장을 비롯한 관련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겠노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피해아동과 학부모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태도는 이 사태의 심



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교육계가 가장 큰 병폐인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처사라는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는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학교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것이며 학교현장에서 빈번히 성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당국은 이번 교사성폭력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무너져 대로 무너진 학부모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것, 부적격교사 검증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켜 교사들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아주는

손미애(원주지회 상담실장)

사설

학생 생활규정, 학생을 퇴출하는 벌점제도를 개선하라!!

6월 한 달 동안 우리회 학부모 상담실에 상담을 의뢰해온 상담건수는 91건이다. 6월 학부모 상담의 특징으로는 학교 문제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학생 부당징계에 관한 상담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4.15학교 자율화 조치가 발표되고 난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으로서 학생에 대한 엄격한 징계규정의 적용과 학교와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보복성 학생 징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8학군에 소개하고 있는 모 고등학교의 경우처럼 학생생활규정이 학생 관리 편의만을 위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학교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생활규정상의 벌점 제도를 근거로 하여 손쉽게 권고전학이나 퇴학처분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날로 그물망처럼 촘촘해져 가는 벌점제도는 하루 15~16시간 좁은 교실,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아 꼼작 말고 선생님 말씀만 들어야 하는 주입식 학교 교육체제에 학생들을 손쉽게 복종시키고 순응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학생을 학교 밖으로 손쉽게 퇴출시키고 있다.

학교현장의 이러한 비교육적인 상황을 조장하는 배후에는 학교 간 경쟁을 강요하는 새 정부의 415학교 자율화 조

치와 일제고사, 학교별 성적공개 정책이 있다. 명문학교, 명품학교 지향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가 학생 지도가 어렵거나 학교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는 학생들을 손쉽게 퇴출시키고 말 잘 듣고 양전한 학생들만 남겨서 명품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유혹에 손쉽게 빠져 들게 한다. 학교가 학생을 인격적으로 보호하고 지도하기보다는 학교 성적 향상(학력 신장)에 방해가 되는 학생들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너무나도 비교육적인 행태로 인해 학생들은 또 다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다.

징계과정상에서의 학생 인권침해 논란, 학습권침해 논란 또한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지금도 우리학생들은 0교시, 우열반, 심야 강제 학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 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 촘촘하게 짜여진 벌점제도 까지 동원하여 학생들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학교는 점수경쟁을 위한 학생 통제기구로 전락 하게 될 뿐이다. 학교가 최소한의 교육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벌점제도로 퇴출하는 학생 생활규정부터 당장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성적경쟁만을 강요하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교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를 하기 위한 노력하기 해서는 안 되며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서도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광고

학부모 상담실 12기 상담원 교육

아이와, 나, 그리고 우리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부모 상담교육입니다. 사(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에서는 상담원교육을 통해 청소년 인권문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 관련 법률의 해석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를 통해 교육문제, 청소년인권문제에 대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8년 9월 3일 ~ 9월 26일(매주 수,금)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2008년 10월 1일, 2일(수,목) 오전 10시30분~오후 5시30분, 에너그림

■ 대상

학부모 25명 선착순 마감

■ 장소

안병무 홀(한백교회) - 5호선 서대문역 1,2번 출구

■ 교육비

회원 5만원, 비회원 7만원

계좌 : 하나은행 159-910005-49404 참교육학부모회

■ 주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문의 02) 393-8900 / 02) 393-8980

※ 교육 이수 후 우리회 학부모상담실에서 실습상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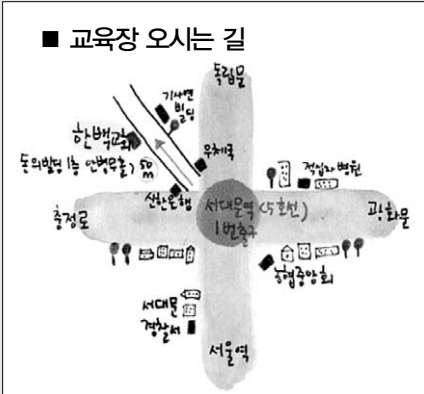
※ 강의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윤숙자
편집위원 송한웅 오영실 이희정 임영희 전은자 정은숙 박은희
주소 (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병천동 209번지 2층 5반
전화 02-393-8900 **전송**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숙자 **수석부회장** 박이선 **부회장** 정은숙 김석순
정순임 김사 김미옥 임영희 서경자 사무처장 이희정 상
담실실장 정책위원회장 교육지시위원회장 전
은자 언론정보윤리위원회장 송한웅 상근자 김임정 심정
숙 박은희

서울지부	02)393-8900	지부장 박범이
남부지회	02)588-8980	지회장 박현미
동북부지회	02)3491-5235	지회장 박범이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노현경
경기지부	031)236-0002	지부장 최주영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이현숙
구리남양주지회	010-9024-6638	지회장 유진경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김윤주
양주지회	031)862-8720	지회장 김희희
용인지회	031)281-7696	지회장 이정희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회장 최주영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문향자
수원지회	031)254-2004	지회장 박준영
강원지부(준)		
원주지회	011-9797-3633	지회장 윤금옥
충남지부	041)576-6677	지부장 김영숙
천안지회	041)576-6677	지회장 박갑주
홍성지회	011-420-3979	지회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6-9599-0658	지회장 김한중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최은순
전북지부	062-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전주지회	063)231-9770	지회장 임혜순
정읍지회	063)535-0191	지회장 서세희
전남지부	061)334-9271	지부장 오승주
목포지회	061)284-6575	지회장 오승주
화순지회	061)375-9109	지회장 문은아
나주시회	016)9882-2870	지회장 김정숙
장흥지회	010-7566-0798	지회장 김승남
영암지회	010-4618-0962	지회장 최옥주
대구지부	053)751-4070	지부장 김영희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채승영
울산지부	052)268-0987	지부장 고영호
경북지부	011-537-0983	지부장 정복순
안동지회	054)853-5902	지회장 김승균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신현자
칠곡지회	054)972-8334	지회장
구미지회	010-2366-1365	지회장 김성희
상주시회	019-289-0839	지회장 김영선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경주(준)	010-7580-8796	위원장 신경진
경남지부	055)282-1950	지부장 한준권
진주시회	055)748-1352	지회장 황은득
거제지회	055)638-4130	지회장 이 현
마창진지회	055)282-1950	지회장 배경희
사천지회	019-507-1459	지회장 정승아
김해지회	055)321-8929	지회장 서현화
거창지회	011-9046-3463	지회장 서미경
밀양지회	016-478-1035	지회장 박재호

지문위원회 ● 이규원(지문위원장 · 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김지현(법률사무소 창지 변호사)/권장희 (농미디어교육재단 소장)/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김민현(경북대 교육학과 교수)/김영선(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교사)/김용일(한국해경대 교직과정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현(사단)인덕기(화산합동농림사무소 변호사)/박수선(평화재단은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영(남부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백상빈(강릉아산병원 정신과 교수)/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담교사)/송병준(변호사)/이기무(인하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이재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전양숙(새틀 심리 상담 소장)/정용택(삼명대학교 석좌교수)/조성택(법무법인창조 변호사)/최문순(국회의원/최한성(강원대학교 총장)



도시개발 대표그룹



꿈을 세계로 펼쳐갑니다
가치를 미래로 키워갑니다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 글로벌 디벨로퍼로 -
꿈의 주거공간을 창조하는 도시개발 대표그룹
Dream Space Developer - DSD



**Dream
Space
Developer**

DSD삼호 · DSD부림 · 한독건설 · 신삼호 · 삼호건설 · 호담 · 소리자비